

한국인 히어로 7명 구성 한정판 ‘마블 만화’ 뜬다

세계 최대 팝컬처 박람회서 11월 출간 발표
가장 미국적 부문서 변화…한류 영향력 증명

세계적 슈퍼히어로 프랜차이즈인 마블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배우 마동석·박서준 등이 마블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한 데 이어 한국의 슈퍼 히어로 7명을 주인공을 내세운 마블 만화가 한정판 시리즈로 출간돼 눈길을 끈다.

마블은 지난달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팝컬처(대중문화) 박람회인 ‘코믹콘’에서 대한민국 슈퍼히어로 7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5부작 한정판 만화 시리즈 ‘타이거 디비전’을 11월 출간한다고 발표했다. 이 만화에는 태극문양 수트를 입고 있는 ‘한국판 캡틴 아메리카’ 격인 ‘태극기’, 구미호 전설에 기반한 ‘화이트 폭스’, 케이(K)팝 스타 히어로 ‘루나 스노우’ 등이 캐릭터로 포함됐다.

가장 미국적인 팝컬처로 꼽히는 ‘슈퍼히어로 코믹스’에 한국인들만 구성된 히어로 집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리즈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케이콘텐츠에 대한 관심이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마블 영화에는 이미 한류가 거세다. 마블 스튜디오는 지난해 개봉한 ‘이터널스’에 마동석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히어로 길가메시로 나섰고 내년 7월 28일 개봉 예정인 ‘캡틴마블’의 후속편인 ‘더 마블스’에는 박서준이 출연할 예정이다. 마블은 극중 박서준이 맡을 역할을 비밀에 붙이고 있으나, 원작 코믹스에서 뛰어난 두뇌를 가진 것으로 설정된 한국계 히어로이자 수련인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연기했던 헬렌 조의 아들인 아마데우스 조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웹진 RPK 에디터 다니엘 리치먼이 SNS에 ‘오징어게임’ 스타 이정재가 마블 영화에 합류할 논의 중이라고 밝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가 ‘상치2’에 등장할 차기 빌런 혹은 ‘스파이더맨’의 미스터 네거티브를 연기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배역까지 떠돌았다. 이정재가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여전히 이정재에 대한 마블 팬들의 기대가 모이면서 한국 배우들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승미 기자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타이거 디비전

코미디 영화 ‘육사오’의 배우 고경표

“매일 야식으로 살 찌우며 촬영…행복했죠”

어머니 돌아가신 후 욕심 내려와
인생 짧다는 생각…술도 끊었죠
주연보다 스펙트럼 넓은 배우 꿈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데요.”

배우 고경표(32)가 군대를 무대로 한 코미디 영화 ‘육사오’ 개봉을 앞두고 자신의 군 생활을 돌아봤다. “어머니의 암 판정” 소식을 듣고 2018년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우울함”에 빠져있었던 그는 늘 자신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해준 전우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동기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한 자신을 “잘 따라와 준 동생들” 덕분에 2020년 1월 만기 전역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최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난 그는 군대에서 만나 막역한 사이가 된 동료 배우 주원, 가수 빈지노, 그룹 빅뱅 태양·대성과의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군 생활을 하면서 공연하며 ‘군방’(군대+빅뱅)을 결성했다”는 그는 “이들과 함께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꿈과 예술,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다. 함께 이야기



배우 고경표가 군대 소재의 코미디 영화 ‘육사오’ 개봉을 앞두고 “내 군 생활은 전우들의 배려 덕에 좋은 추억이 됐다”고 돌아봤다.

사진제공 | 싸이더스

하다 보면 나도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 “포동포동한 역할, 실컷 먹으며 행복”

24일 개봉하는 영화에서 고경표는 바람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버린 1등 당첨 로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말년병장을 연기한다. 한껏 풀어 질대로 풀어진 말년병장 역을 위해 “매일 야식을 먹으며 살을 포동포동” 찌웠다. 앞서라가 7이었던 몸무게가 촬영 막바지에는 88kg로 바뀌었다.

“맘 놓고 먹을 수 있어 행복했죠. 원래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살을 빼야 확실히 건강한 게 느껴져요. 이제는 다이어트가 익숙해져서 살찌우는 역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고무줄 몸무게’로 유명하지만 살 뺄 때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쏟아야 하거든요.”

오랜만에 출연한 “코미디 영화”에 대한 만족감도 크다. 시사회에서 관객의 “즉각적인 웃음과 리액션”을 확인하니 더욱 기분이 좋다.

“사실 예전엔 코믹 연기 하는 게 싫었어요. 어린 마음에 맛있는 것만 하고 싶었죠. 그런데 장진 감독님과 ‘SNL코리아’를 하면서 코미디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도 바뀌었어요. 상황과 정서를 쌓아 설계한 순간에 웃음이 딱 터져 나오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 “어머니 돌아가신 후 삶이 달라졌죠.”

앞서 개봉한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는 조연,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D.P.’에서는 특별출연했다.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명실상부 ‘주연 배우’로 우뚝 섰지만 그에게 “주·조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전 연기가 하고 싶은 거지 주연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역이어도 상관없죠. 그게 제가 되고 싶은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욕심을 부리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2020년 9월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됐다.

“어머니는 제 세상의 전부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세상은 없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 누나 모두 어머니와 함께 그때 죽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은 죽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가장 두려웠던 일을 겪고 나니 인생이 참 짧고 덧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절 건강하게 만드는 느낌이에요. 최근에는 술까지 끊었죠. 지금이 너무 좋아요.”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채널A ‘펜트하우스’ 스릴러 다큐 뽐쳐…몰입도 엄청났다”

두 주인공 래퍼 서출구·배우 조선기
“삶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 담겨있어”

래퍼 서출구(서명원·30)와 동갑내기 배우 조선기가 채널A 예능프로그램 ‘입주정찰전: 펜트하우스’(펜트하우스)를 “예능 아닌 스릴러 다큐!”라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이들은 5층짜리 펜트몰에 모인 8명의 참가자가 최고 권력이 주어지는 최상층을 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이던 촬영 당시를 떠올리며 “여느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다른 ‘사회 실험’이자 연극”이라며 “삶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서출구와 조선기는 초반부터 연합하며 프로그램의 재미를 끌어올린 주인공이다.

서출구는 음식 구입 등 펜트하우스 안에서 결제되는 모든 비용이 최종 상금 4억 원에서 차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참가자들의 중심에 섰다. 조선기는 서출구와 함께 연합을 주도하다 최근 방송에서 오해로 인해 갈등을 겪으면서 첫 탈락자가 됐다.

최근 스포츠동아와 동남 인터뷰를 가진 이들은 “당시에는 욕설까지 하며 다뤘지만 촬영현장을 떠나는 순간 전부 다 잊었다”면서 “6월 초 촬영을 마친 이후 두어 번 정도 따로 만나 소주 한잔할 만큼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출구는 “먹는 것부터 자는 환경까지 모든 게 통제된 촬영현장이 어느 프로그램보다 몰입도가 높았던 덕분”이라며 “출연자 모두가 진심으로 몰두해 경쟁한 만큼

시청자에게도 생생하게 다가가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조선기는 “다만 방송 특성상 심각하게 그려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 끼리는 웃으면서 즐겁게 촬영했다”고 돌아봤다.

온라인에서 이들의 연합과 갈등이 화제를 모으면서 프로그램의 마니아층도 점점 쌓이고 있다. 조선기는 또 다른 참가자인 배우 김보성 등과 대립하는 모습 때문에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면서 “그만큼 시청자들이 ‘과몰입’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웃었다. 서출구는 “서바이벌 포맷에 놓인 참가자들의 행동을 일상의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면서 “조선기가 4회를 이끌면서 프로그램의 재미가 커졌다”고 극찬했다.



채널A ‘입주정찰전: 펜트하우스’에 출연한 래퍼 서출구와 배우 조선기(왼쪽부터)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동아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앞서 대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앞으로 남은 방송에서 생존자인 서출구는 더욱 날선 두뇌싸움을 펼친다. 그는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는 모습들이 담긴다”면서 “저 안에서 과연 나는 누구일까” 생각하며 시청한다면 최고의 재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보는 사람 입는 사람 다 시원하다! 무더운 여름 잘 어울리는 시원한 하와이안 반팔 남방셔츠 바캉스, 일상복, 외출복, 데일리룩 아이템으로 안성맞춤 1장 39,800원



올여름 유행으로 떠오르는 하와이안 패턴 셔츠~ 휴양지의 느낌이 일상의 변화를 이끈다.
화려한 패턴이지만 점잖은 톤으로 세련되며 뎀디한 느낌을 낼 수 있다.



10번



30번



40번



50번



60번



70번

사이즈 M(95), L(100), XL(105), 2XL(110), 3XL(120), 4XL(130) 1장 ₩39,800 / 2장 ₩6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썬스포츠가 무더운 여름에 잘 어울리고 시원한 하와이안 반팔 남방셔츠를 선보인다. 일상복, 외출복, 데일리룩, 휴가 바캉스룩으로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다양하고 독특한 패턴과 색상으로 입는 분의 품격까지 생각한 제품이다. 내부의 열기와 수분을 빠르게 배출하고 바람을 놓치지 않는 공기 순환을 통해 쾌적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색상과 독특한 패턴으로 시원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멋을 더했다. 프리미엄 원단으로 입었을 때 구김 없이 편안하고 시원하게 데일리룩 휴가 바캉스룩으로 안성맞춤이다. 빅 사이즈(120~130)까지 생산하여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썬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카드결제 가능